

電氣界의 이런일 저런일

爆笑를 자아낸 소련將校의 電球 검사



金善集
(東洋物産(株)會長)

이제 겨우 電友會 正會員 資格을 얻은지 얼마 안되는 日淺한 筆者에게 電氣界의 이런일 저런일을 엮은 回顧談을 적어내라는 協會의 請託이 있어 두서없이 기억을 더듬어 적어 본다.

電氣界의 이모저모를 골고루 다양하게 서술하자면 우선 다음 다섯 分野의 機關(行政官廳, 電力會社, 電氣·電子Maker, 電力需用家 및 學界)에 關係있는 重要한 實話들을 興味있고, 体系있게 엮어야겠다.

筆者는 다행히도 八·一五解放 以後 이 五개 分野에서 奉職할 기회를 比較的 골고루 가졌기 때문에 우선 讀者가 흥미를 느낄수 있는 話題를 균형있게 羅列한 다음 紙面이 許諾하는 範圍에서 몇가지 題目을 골라 엮어 보기로 하겠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話題를 年次順으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이中에는 秘話에 속하는 內容들이 끼어 있음)

○ 朝鮮總督府時節에 調査 作成한 우리나라 全國 水力地点調査台帳이 消滅된 事實을 늦게 認知했을 때의 憤怒(1946)

○ 南北韓 電力代金精算委員會 商務部 實務責任者로서 서울驛 構內에 臨時假設한 列車事務室 안에서 거행된 美소共同委員會 分科委員會에 立會 參席(1947)

○ 서울市內 地下 Cable (22KV) 接地事故 地点을 早速히 發見하기 위한 測定法을 京電 責任者에게 傳授(1947)

○ 北韓이 蠻行한 1948年 5月14日의 斷電.

○ 發電艦 JACONA (3 MW)의 始送電式 立會(釜山第四부두) (1948)

○ 完全 運休中인 寧越火力發電所의 緊急復舊命令과 堤川·寧越間 發電用炭 緊急輸送作戰 (1948-1949)

○ 濟州島 御乘生水力地点 踏查 回顧(1949)

○ 任永信 商工部長官의 唐人里發電所및 釜山火力發電所 運營權의 移管指示 (京電및 南電으로부터 朝鮮電業에 移管) (1949)

○ 寧越火力發電所 緊急復舊用 資材購買를 둘러싼 商工部 尹溍善長官과 購買處 金佑平處長의 微妙한 對立(1950)

○ 國產 콘크리트電柱(1959)와 國產PVC電線

(1960)의 使用勸告를 反對하고 나선 京電當局의 拒否反應(1957)

○ 電力三社 統合과 韓國電力株式會社 常務 取締役 就任(1961)

○ 清平發電所 復舊工事用(Stone & Webster 施工) 設計圖面을 入手하러 USOM職員과 美軍 用機便으로 日立製作所에 渡日 出張(國交 正常化前) (1962)

○ 昭陽江水力發電所 建設을 위한 借款供與 假協約의 調印式(1962) (韓電과 丸紅間)

○ 寧越火力 緊急 復舊工事의 出力性能試驗 때 美國人 責任者를 落淚케 한 談判(1963)

○ 새 標準電壓의 体系確立과 各種 配電電壓을 22.9KV로 統一昇壓한 英斷과 電力損失 減少對策(1963)

○ 第八回 IEBC會議에 參席한 朴英俊社長이 展開한(Detroit 電力會社 社長 WALKER L. CISLER와 東京電力 青木均一 社長과의) 外交 活動이 世界電力界進出의 礎石을 굳혔다(1964)

○ 世界動力會議에 韓國을 加入시킨 CISLER氏의 暗躍秘話(1965)

○ 釜山火力發電所 2號機의 性能 未達로 美國會社에 罰金을 賦課한 衝激波(1964)

○ 八·一五以後 繼續된 電力供給制限이 完全解消된 感激과 政府의 電源開發財政投融資 계획의 下向修正이 미칠 憂慮(1964年 4月)

○ 建設中인 春川水力發電所 Earth Dam 의 洪水被害를 問責하던 國會 商工分科委員會의 夜間 國政監査(1964)

○ 群山火力發電所의 公害防止를 위한 追加 資金申請을 AID當局이 拒否한 理由 說明(1965)

○ 政府의 中央災害對策本部로부터 過度의 豫備放水 指示를 받고 울상짓는 韓電의 給電司令部.

○ 制限送電 再發을 解消하기 위한 朴正熙大統領의 Diesel機關車 動員命令(1967)

○ 民間電力三社(東海, 湖南, 京仁)의 出現

과 韓電의 財務構造 惡化招來(1970-72)

○ 第一回 韓電電力研修團이 訪台(1969年)하여 兩國間의 電力成長을 占친 結果가 어찌 되었나?

○ 自動給電設備(ALD) 導入의 險難했던 隘路와 美 用役會社職員의 망발(1969)

○ 大韓電氣協會와 美國 에디슨財團이 共同 主催한 第14回 IEBC會議의 에피소드(1970)

○ 韓電이 東海電力(株)을 引受하는 原則을 覺醒化 作業하던 기구한 運命의 金一煥社長室과 이 光景을 지켜보며 밤새우던 金鍾大社長(東海電力) (1971)

○ 電氣事業法에 規制돼있는 電氣主任技術者 選任制度의 等閑視 傾向과 그 後遺症

○ 發電艦「RESISTANCE」號의 賣渡와 비울빈 技術者의 訓練用役(1971)

○ 民資誘致의 名分으로 着工된 第1號 民間發電所「衣岩水力」의 行方(1962年)

○ 韓電의 電力需給想定과 「THOMAS REPORT」 및 經濟科學審議委員會의 權能

○ 八堂水力發電所 建設工事費가 計劃에 비해 엄청나게 三倍 가까이 된 顛末(1973年10月)

○ 制限送電中에 火力發電所 보일러 突發事故가 發生하여 斷熱服(消火作業服의 一種)을 입고 冷却中의 보일러 속에 突入하여 應急作業을 陣頭指揮하는 電氣主任技術者.

○ 大韓電氣技師協會에 왜 一級技師가 加入하지 않는가?

○ 不正蓄財者 關聯事件의 證人으로 收監됐던 韓電重役의 人事問題를 의연한 마음으로 處事했던 朴英俊社長

紙面의 制限 關係로 위에 羅列한 30餘 題目의 回顧談을 일일이 풀어 놓을 수 없어서 이번 機會에는 讀者들이 이미 잊어버렸거나 또는 듣지도 못했을지 모르는 옛이야기부터 우선 몇가지 더듬어 回想해 보기로 한다.

八·一五解放 直後 그어진三八線을 境界로 北에서 南으로 送電하기로 合意한 電力은 10萬 KW(受電端基準)였으나 1948年 5月14日 突然히 北韓이 斷電을 蠻行하고 말았다.

그 當時의 南北間을 連繫하는 送電線系統은 우리側이 受電하는 平壤 第2變電所와 水色變電所 사이의 154KV 系統과 金化變電所와 往十里變電所를 잇는 66KV 金剛山送電線의 두 系統이 있었고 이와 反對로 襄陽에서 以北으로 逆送電하는 66KV 送電線이 있었다. 그때는 南北을 잇는 給電司令電話(水色~平壤間)를 通해 給電에 關한 意思疎通을 곤잘 했으며 10萬KW의 一定한 電力을 24時間 受電하고 있었다.

우리側에서 受電한 電力代金の 支拂精算業務는 美軍政下의 美소共同委員會에서 主管하고 南北韓側은 立會단 했었다. 그 당시 미군정청 商務部(吳禎洙長官)가 立會하게 돼 있었다. 電力代金の 支拂精算은 北韓의 要求에 따라 原則的으로 各種 電力用資材의 現物로 支拂하기로 美소共同委員會가 合意하였기 때문에 商務部 工業局(柳漢相局長) 電氣課(權彝憲課長) 所屬였던 筆者는 吳禎洙商務部長官의 命을 받들고 서울驛 構內 東쪽 끝 플랫폼(지금의 京釜線列車 出發處)에 臨時로 假設한 北韓側 一等客車二輛속에서 舉行된 美소間의 電力代金精算協商에 밤 늦게까지 立會하고 다음날 上部에 報告하는것이 日課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勤務를 半年쯤 繼續하는 동안, 美軍剩餘物資를 保管하고 있던 高麗興業株式會社永登浦倉庫에서 品質檢査에 立會하는 일이 往往 있었다. 北韓이 소聯側을 通해 要求한 物資는 電力用變壓器, 柱上變壓器, 開閉器類, 電力케이블, 電線類, 白熱電球 등등 電氣關係 資材와 自動車타이어, 튜브등이었다. 送受電電力量의 確認은 雙方이 쉽게 合意할수 있었으나, 電力代金支拂 對象物資의 規格과 單價 合意가 容易하지 않아 通禁時間直前까지 싸우며 一方的 主

張으로 밤을 넘기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밖에 品質檢査때 많은 紳센스가 있었는데 兩側의 緊張과 對立은 어른 장난치고는 爆笑을 자아내는 場面이 가끔 있었다. 特히 白熱電球 引受試驗光景(科學的 試驗器具가 全然 없는 狀態에서 引渡引受 作業이 進行되었었다)은 불만했었다. 体重이 120kg가 훨씬 넘게 보이는 무지막지한 巨軀의 소련군 고급장교 (將軍格으로 보였다)가 코끼리 발가락만한 손으로 電球의 「베이스」를 쥐고 白熱電球의 유리를 單쪽 손등에 탁탁 쳐 깨트려버리면서 不合格을 主張하고 나서면 우리側을 代表한 美軍政廳側은 그와 대조적으로 자기 손등위에 때려도 깨지지 않는 것을 要領 좋게 보이며 反論을 主張하는 것이었다. 육중한 손으로 마구 난타를 가하면 깨질 것이 分명한데 그렇게 亂暴하게 取扱하는 法이 어디 있느냐고 美國側이 抗議하면 대개 슬그머니 수그러지기도 했다. 또 무지막지한 육중한 손으로 電球의 베이스(頭部金屬部分)를 故意로 비틀어 接着「세멘딩」을 땀 다음 「리드 와이어」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목(베이스)을 보이며 不滿을 표시하는 연극도 가끔 벌이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우리 南北韓 立會者들은 美소가 展開하는 쓰를 방관하는 수막에 없었다. 이때 그들은 서로 視線이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는 태도였다.

北韓이 突然히 斷電했던 1948年 5月14日 前後的 南韓全體 電力負荷는 128,000KW 였으나 그 當時 南韓의 發電量이 28,000KW에 不過였으니, 斷電後 南韓이 直面한 電力需給面에서의 곤란과 곤역은 讀者諸位가 容易하게 想像할 수 있을 것이다.

1948年 8月15日 大韓民國政府가 發足한 直後, 政府가 處한 課題는 發電力의 緊急 確保와 制限送電의 早速한 解除였다. 그리하여 斷電 直後 美軍政當局者는 最短時間內에 電源을 確保

하기 위해 美國으로부터 Jacona號, Electra 號 등 發電艦을 緊急 導入하여 釜山 仁川港에 各 碇泊시켜 電力供給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寧越火力發電所의 緊急復舊를 둘러싼 歷史的 石炭輸送作戰이 卽연 황진과 더불어 머 리속에 떠오른다. 그當時 南韓에 存在했던 最大 規模의 發電設備(10萬KW)는 八·一五解放后 完全 運休中에 있었던 寧越火力發電所였는데 이를 緊急히 稼動시키는 方法 이외에 早期에 確保할만한 電源對策이 없었다. 美軍政이 幕을 내리고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됐을 때 電氣局이 비로서 誕生하여 商工部에 隸屬되어 初代電氣局長으로 金永年氏가 就任하였다.

緊急措置로서 商工部電氣局이 寧越火力發電所 復舊工事を 異例의으로 直接 指揮하였으며, 寧越發電所 現地 監督官으로 權彝憲씨를, 磨磋鑛業所現地監督官으로 太完善씨를 任命하여 緊急復舊作業을 督勵시켰다. 日政下에서 最大出力 約5萬KW를 記錄했던 寧越發電所를 우리 의 先輩들이(이미 他界하신 孫季哲씨와 權伍常씨 등등) 우리 의 技術을 總動員하여 6萬KW의 最大 出力을 發電하였다.

그러나 平均出力 3~4萬KW를 維持하는데는 每日 1,000屯 以上の 石炭熱量(4,000~4,500 Kcal/kg의 低質炭)을 消費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廢鑛되다시피 한 大韓石炭公社 所屬 磨磋鑛業所를 朝鮮電業 寧越發電所에 移管시켜 發電所側에서 直營하였으나 石炭의 生産不振과 빈번한 索道故障(炭鑛과 發電所間 索道距離는 約 12km)으로 겨우 하루에 350乃至 400屯씩 받아들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不足炭 約 600屯/은 每日 Truck으로 堤川驛에서 寧越發電所까지 運搬하여 供給하는 道理밖에 없었다.

1949年 當時의 우리나라 貨物自動車는 美軍用추력GMC(定格積載容量 2.5屯)의 拂下中古車가 最高級車였는데 그중에서 쓸만한車가 全

國에서 動員돼 寧越·堤川間의 非포장도로를 輻輳 程度로 長蛇陣을 이루었다. 砂漠에서 暴風이 불어 일으킨 黃塵 속에서 처럼 앞을 잘 보지 못하는 運轉手들은 좀처럼 速力을 낼수 없었고, 또 정면 충돌의 危險이 허다하였다. 國道양쪽의 街路樹와 農作物 위에는 먼지가 두툼하게 덮혀 있어 푸른색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片道 3時間 남짓 걸리는 시골山길을 欲心내서 4 내지 5屯의 石炭을 滿載하고 運搬하자니 都合 約 100台的 추력이 動員됐던 것이다 이 超非常 石炭運搬을 支援하기 위해 政府는 揮發油와 타이어를 配給해주었고 其他 運賃支拂에도 많은 便宜를 도모해 주었다.

이 도개비輸送作戰은 發電艦 JACONA 및 ELECTRA號가 釜山과 仁川港에 各各 碇泊하여 本格的인 發電을 開始할 때까지 持續할 수 밖에 없었다. 參考로 寧越發電所(25MW×4台)의 그 當時의 石炭消費率을 添言하면 磨磋炭만 을 燃燒했을 때는 平均 1.2kg/KWh였고, 堤川서 搬入하는 丹陽炭을 使用해도 1kg/KWh 以下로 내려가기가 좀처럼 힘들었다. (다음 號에 계속)

[筆者略歷]

1919. 7. 15일 생

1. 京畿高等學校卒業
2. 早稻田大學理工學部電氣科 卒業
3. 日本軍陸軍技術中尉
4. 商工部電氣局技術係長
5. 陸軍第60通信戰隊長(中領)
6. 空軍本部軍需局次長
7. 서울工大電氣課講師
8. 中央産業(株) 常務
9. 大韓電線(株) 常務
10. 韓國電力株式會社 專務
11. 大韓電氣技師協會會長
12. 東洋物産(株) 會長